화려한 채색화로…호남민화의 부활



'까치와 호랑이'.

도서관·문화센터 등 민화강좌 조선이공대·광주교대 등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설

회원 90명 '호남민화사랑회' 21~27일 은암미술관서 창립전



황영성 작 '붉은 원숭이'

푸른 소나무 밑에서 성난 호랑이 한마 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무엇인가를 노려 보고 있다. 호랑이가 쳐다보는 곳에는 까 치가 날개를 펄럭이며 날고 있다. 겁 없 는 까치가 호랑이를 조롱하는 모양새다. 액운과 잡귀를 막아준다는 호랑이와 상 서로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 음력 정월를 뜻하는 소나무를 그린 민화 '작호도'(鵲 虎圖)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새해가 되면 작호도를 대문에 붙이고 한해 동안

최근 광주지역에서 남종화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각 문화센터에서 민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관련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 중

액운과 잡귀를 내쫓고 좋은 일만 있길 기

광주는 그동안 '민화 불모지'나 다름 없 었다. 민화를 정식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 던 풍토가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지역에 서 발견된 민화작품들은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전라도 민화를 발굴·연구했던 지형원 문화통 발행인은 "타지역은 대게 떠돌이 화가나 일반인들이 민화를 그렸던 반면 전라도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문인화가 들이 그린 경우가 많아 월등히 높은 품격 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출범식을 갖는 '호남민화사



랑회'(회장 문미숙)는 지역 민화를 널리 알리고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강진 한국민화뮤지엄의 명예관장인 문 미숙씨가 회장을 맡아 결성했으며 민화 작가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기 업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민화뮤 지엄 개관을 계기로 설립된 신생 단체지 만 8개월 만에 회원 90여 명을 모집했다.

민화 단체 대부분이 작가를 주축으로 하는 데 반해 호남민화사랑회는 작가들을 후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문화계 인사들 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들 은 맥이 끊겼던 전라도 민화를 발굴하고 계승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다는 목표도 세웠다.

21~27일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창립 기념전 '호남민화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 며'에는 성혜숙·강희정·김수연 등 회원 23명이 참여했다. 또 황영성 작가,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 한희원 작가의 작품 과 가회민화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문 회장의 소장품 등이 전시된다.

문 회장은 "호남의 민화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통과 역사가 정리되 지 않아 아쉬웠다"며 "앞으로 숨어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각종 문화상품들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화 단체인 한국전통채색화협 회(회장 박순애)는 우청 김생수 작가의 문

하생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생수 작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광주 동부문화원, 호 남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자 양성에 힘 써왔다. 김 작가는 민화라는 호칭 대신 '전 통채색화'로 부르길 주장한다. '민화'가 일본에서 건너온 용어라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대한민국전통채색화 공모전을 매 년 개최하고 있으며 초대전 등을 통해 지 역 간 교류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0년 창립된 광주전통민화협회 (회장 성혜숙)는 성혜숙 작가의 문하생 모 임으로 민화의 저변확대를 주도하고 있 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 꿈나무사회복지 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회장 은 한국전통민화협회공모전 최우수상, 대 한민국 황실공예대전 장려상 등 각종 대 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담백한 멋을 지닌 문인화나 서예 보다는 화려한 오방색을 앞세운 민 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배우려 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민화 는 대부분 창작이 아닌 모방이기 때문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게 특징이다.

광주는 전통문화관, 서구문화센터, 산 수도서관, 광주 전통공예문화학교, 광주 향교, 꿈나무사회복지관, 광주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접할 수 있다. 오는 3월에는 조선이공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 교 평생교육원도 민화교육과정을 신설한 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복룡동 유적서 中 신나라 화폐 국내 첫 대량 출토 …기원후 14년 교류 추정



광주 복룡동 유적에서 중국 신나라(8~23년)때 화폐 '화천(貨泉)'이 우 리나라 최초로 꾸러미로 출토됐다.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송정1교~나 주시 간 도로확장공사구간 내 광주 복룡동 유적을 발굴조사한 결과 움무 덤인 토광묘에서 화천 50여점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천은 총 19점으로 주로 조개더미 등 생 활 관련 유적에서 소량으로만 확인됐다.

기원후 14년 처음으로 주조된 화천은 후한 광무제가 '오수전(五銖錢)' 으로 화폐를 통합한 40년까지 통용된 화폐로, 정확한 주조연대를 알 수 있 고 통용 시기가 한정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화천이 영산강 유역과 남해안 지역, 제주 등 한정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반도 서남부에 중국과 교역을 했던 정치집단이 있 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 모두 95개의 유구 가 확인됐다. 단경호(짧은목항아리) 1점, 청색 유리옥 78점 등도 함께 나 왔다. 1호 토광묘에서 남서쪽으로 25m가량 떨어진 2호 토광묘에서는 초 기 철기시대 경질무문장란형(硬質無文長卵形) 토기 1점, 점토띠토기 1점, 완형(사발 모양) 토기 1점, 쇠낫 1점이 확인됐다. 발굴조사는 오는 29일까 지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프라도 미술관-걸작의 숲을 걷다

'인문지행' 24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서 강연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1회 문화예 술 행사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소장 품을 함께 감상하는 '프라도 미술관 첫번째 이야기-걸작의 숲을 걷다'가

프라도 미술관은 15세기 이후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왕 실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만나는 작품은 프 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사진), 보티첼리의 연작 '오네스티 이야기', 히 에로니무스 보쉬의 '쾌락의 동산', 웨이든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 도', 뒤러의 '자화상', '아담과 이브' 등이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가 함께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인문지행(cafe.daum.net /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

